진격의 코스닥… 중소형·내수株 강세에 코스피 수익률 제쳐

코로나 4차 유행에 내수 기대 ⬆
코스닥 일평균 거래대금12.5조
코스피 13.2조로 1조여원 차이

이달 수익률 코스닥 2.13% 기록
코스피 대형주 부진에 -0.59%

코스피가 전 거래일(3276.91)보다 32.87포인트(1.00%) 내린 3244.04에 마감한 1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1051.98) 대비 2.15포인트(0.20%) 내린 1049.83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39.5원)보다 8.3원 오른 1147.8원에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최근 코스닥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코스피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대형주 투자심리가 위축되며 코스피 시장 거래대금이 급감한 탓이다. 수익률도 코스닥 중·소형주가 비교적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유행이 본격화됐음에도 수출보다는 내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 코스닥 거래대금 코스피 '바짝' 수익률도 好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주(12~16일)간 코스닥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12조5982억원으로 코스피(13조2465억원)를 1조원 차이로 바짝 추격했다. 지난 14일은 12조9214억원으로 코스피 12조9931억원과 차이를 좁히더니 이튿날인 15일은 14조7177억원으로 코스피(13조6839억원)를 1조원 이상 웃돌았다.

최근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7월 들어 14조5678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더니 이번 주는 11조원까지 하락하며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17조8047억원)과 비교하면 한참 모자라는 수준이다.

반면 코스닥시장은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12조1062억원)보다 소폭 상승했다.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세가 진정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된 것이 코스닥 반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위축됐던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끌어 올렸다는 얘기다.

수익률도 코스닥 쪽이 더 우세한 상황이다. 이달 코스피 수익률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대형주들의 오름세가 지지부진하며 마이너스 신세(-0.59%)를 면치 못했다. 반면 코스닥은 이 기간 2.1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차별화 현상은 시장 내에서도 나타난다. 이달 들어 코스피 대형주지수는 0.79% 떨어지며 코스피 지수 하락률을 0.2%포인트(p) 웃돌았다. 그래도 같은 기간 코스피 중형주와 소형주지수는 각각 -0.19%, -0.48%로 비교적 선방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코스피에서도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것이 확인된다. 상승 내내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소형주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 내수株 '활활'… 중·소형주 상대성과↑

이는 내수주의 약진으로도 볼 수 있다. 국내 증시의 대형주 구성을 살펴보면 대체로 수출주 비중이 높고 반대로 중·소형주는 내수주 비중이 높다. 경기 회복 양상이 재화 소비보다 대면 접촉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업 중심 소비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만큼 중·소형주의 상대 성과를 끌어 올렸다는 분석이다.

강대석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저효과 해소로 수출 증가율은 둔화하고 내수 소비는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내수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출 추이가 중·소형주 상대성과와 역의 관계에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순수 내수주들의 경우 경제 자체적 요인보다 개별 요인을 꼼꼼히 살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구조적 비대면 추세가 가팔라진 만큼 적극적인 구조조정 등의 '해법'을 찾지 못한 내수주들에 대해선 눈높이를 낮춰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일각에선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를 중·소형주의 우려요인으로 꼽는다. 대형주보다 기업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만큼 극단적인 리스크가 부각될 때 부진도 심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단기적으로 이번 사태가 증시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도 "경기와 기업 실적의 개선세가 뚜렷한 만큼 길게 보면 한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근거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GS건설, ESG경영 가속… 친환경 사업 확대

신재생 전력 인프라 구축 본격화
영일만4 산업단지 5000억 투자

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구축과 운영 사업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 GS건설은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며 ESG경영을 더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GS건설은 포항시청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100%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투자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양해각서로 향후 GS건설은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100%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규모는 약 5000억원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만 약 98.9㎿ 전원을 확보하게 된다. 투자기간은 2023년~2028년까지 6년간이다.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는 포항시가 미래 탄소중립의 전초기지로 준비 중인 공단으로 RE100(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태양에너지, 바람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 하는 자발적 캠페인)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형 산업 단지로 도약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GS건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운영을 맡게 된다.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 위치도. /GS건설

허윤홍 GS건설 신사업부문 대표는 "100%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 미래사업인 만큼 이번 투자를 계기로GS건설은 ESG 선도기업으로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지속가능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일만 4 일반산단은 포항북구 흥해읍 곡강·용한리 일원 260만㎡(78만평) 부지에 조성 되는 단지로 지난 2019년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형 공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GS 건설은 지난해 경상북도, 포항시와 2차전지 배터리 리사이클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맺고 올해 공장 준공에 들어간다.

/정연우 기자 ywj964@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결제액 역대 최대

보관 889억 달러, 결제 2621억 달러
전체 보관금액 미국이 전체의 61.4%

올 상반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과 결제금액이 모두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889억2000만달러, 결제금액은 2621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직전 반기(1809억4000만달러) 대비 44.3%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 연간 결제금액(3233억9000만달러)의 80.8%에 해당하는 수치다.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889억2000만달러로 직전 반기(722억2000만달러) 대비 23.1% 증가했다. 종류별로 보면 외화주식이 658억8000만달러로 직전 반기 대비 39.9% 증가한 반면, 외화채권은 230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251억4000만달러) 대비 8.4% 감소했다.

시장별로 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61.4%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상위 5개 시장(미국, 유로시장, 홍콩, 중국, 일본)이 97.6%를 차지했다.

외화주식의 경우 미국이 전체 보관규모의 81.9%를 차지하며 직전반기 대비(373억4000만달러) 44.4% 상승하는 등 국내 투자자의 미국주식 투자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10개 상위종목에는 테슬라, 애플, 아마존 등 미국 나스닥 기술주 및 나스닥 100과 미국 대형주를 추종하는 ETF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미국 주식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658억8000만달러)의 32.3%를 차지했다. 10개 상위종목 중 미국 주식이 아닌 것으로론 8위에 오른 중국 항서제약이 유일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은 2612억 달러로 직전반기(1809억4000만달러) 대비 44.3% 증가했다. 이는2020년 연간 결제금액(3233억9000만달러)의 80.8%에 육박하는 수치다.

외화주식은 2077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274억1000만달러) 대비 63% 증가했고, 외화채권은 534억6000만 달러로 직전 반기(535억3000만달러) 대비 0.1% 감소했다. /양유경 기자 noon@

대신증권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오픈

투자 이해, 재테크 경험 공유

대신증권이 '국내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국내주식 선물하기'는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번호와 이름만 입력하면 보유하고 있던 국내주식을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식을 선물로 주고받으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테크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식 경험이 없는 사람도 주식선물을 통해 투자에 쉽게 입문할 수 있다.

주식을 선물하려면 메뉴의 '주식 선물하기' 화면에서 선물할 종목과 수량을 선택한 다음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선물을 받은 사람은 주식 선물하기 화면에서 '선물받기'를 선택한 뒤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은 선물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대신증권 계좌가 없는 경우 신규계좌개설을 한 뒤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는 대신증권 사이보스와 크레온의 MTS와 HT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감동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양유경 기자

한국투자증권, ELW 349종목 신규 상장

한국투자증권이 주식워런트증권(ELW) 349종목(종목번호 57GL62~ 57GQ10)을 신규 상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상장하는 종목은 코스피200지수 및 코스닥1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 ELW 184종목과 넷마블, 하이브, 카카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W 165종목이다.

신규 상장 종목을 포함하면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거래 가능한 ELW는 총 1657종목으로, 전체 ELW 발행 증권사 중 가장 큰 규모다.

ELW는 기초자산을 만기 시점에 특정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증권이다. 권리를 사고 팔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되는 주식이나 지수를 직접 매수할 때보다 적은 금액으로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양유경 기자